

제12권 18호

2022. 9. 5~2022. 9. 18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 | |
|---------|---|
| 논단 | 내부회계관리제도: 윤두서의 <자화상>을 통한 통찰 |
| 이슈분석 | 미래 먹거리로 고성장중인 대체육 산업 |
| 금융경영브리프 | 글로벌 CVC, 일본계 금융회사의 부상
은행의 새로운 경쟁력, 사이버 보안 |
| 금융시장모니터 | 금 리: 연준과 한은, 경기보다 물가안정 우선
외 환: 견제구 없는 달러화 독주 |
| 금융지표 |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연구위원 김영준(kimekono)
연구위원 안성학(shahn0330)
연구원 신석영(seokeyoung.shin)

논단

교수 신희정

이슈분석

연구위원 안혜영(mith5)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위원 송재만(jmsong)
수석연구원 정윤영(yunyeong.j)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수석연구원 이화정(hj_lee89)
외 환 | 연구위원 오현희(hyunheeoh)

금융지표

연구원 김종현(jh.kim)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코내부회계관리제도: 윤두서의 <자화상>을 통한 통찰
- 04 **이슈분석** 미래 먹거리로 고성장중인 대체육 산업
- 08 **금융경영브리프** 글로벌 CVC, 일본계 금융회사의 부상
 은행의 새로운 경쟁력, 사이버 보안
- 12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연준과 한은, 경기보다 물가안정 우선
 외 환 : 견제구 없는 달러화 독주
- 16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내부회계관리제도: 윤두서의 <자화상>을 통한 통찰*

신 희 정 동의대학교 경영학부 교수(H.Maria.Shin@deu.ac.kr)

최근 오스팀임플란트, 우리은행 등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횡령 사건들로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언론 및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의 원인을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패로 보고 현행 제도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직 논의되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공재(恭齋) 윤두서의 <자화상>에 대한 평가와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통해 제도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근본적 과제를 통찰해 본다.

조선 후기 문인이자 화가였던 공재(恭齋) 윤두서가 그린 <자화상>은 파격적인 구도와 극사실적인 표현 기법으로 유명한 작품이다. 당당한 기세로 정면을 바라보는 구도와 턱수염과 구렛나루의 터럭 한 올 한 올을 세어가며 그린 듯한 세밀함,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답하는 듯 강렬함이 살아있는 눈빛은 한국 초상화의 수작으로 올려놓기에 충분하다. 어느 저서에서 <자화상>을 그린 윤두서의 노력을 두고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산출해야 하는 기업 경영자로서 우리 사회가 바라는 모습”으로 비유한 것은 참으로 적절한 듯하다. 이는 기업의 경영활동이 회계보고를 통해 정직하고 투명하게 공시될 때 투자자들은 기업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감을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안료를 사용하고 화면의 뒷부분을 채색하여 앞으로 배어 나오도록 하는 배채법(背彩法) 등 윤두서의 <자화상>에서 보이는 표현기법은 기업이 수탁책임과 신의성실 원칙을 지키기 위해 경영자 스스로 구축하는 내부통제시스템으로 해석될 수 있다.

파격적인 구도와
극사실적인
표현기법으로
유명한
윤두서의 <자화상>

:: 내부통제시스템으로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최근 오스팀임플란트, 우리은행 등에서 횡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커진 듯 하다. 언론 및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의 원인을 기업의 내부관리회계제도의 실패로 보고 제도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회계정보의 오류 및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절차와 함께 관련 임직원의 업무분장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재무보고 내부통제시스템이다. 이 제도는 美 엔론 사태 이후 회계

연이은 횡령사건으로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관심 높아져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투명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2002년에 사베인옥슬리법(Sarbanes-Oxley Act)이 도입된 후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에 유사한 제도로써 도입한 것이다. 이후 2018년까지는 감사보고서에 검토의견을 첨부하는 수준이었으나 2019년부터 신(新)외감법 시행과 함께 외부감사를 의무화하였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물적·인적자원의
부족이 제도 정착의
걸림돌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도입 후 15년이 넘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제도로써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여기에는 제도가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문제이다.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최소 3억원 가량의 자금이 필요하고 구축 이후에도 연간 관리비용으로 5천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은 2019년부터 내부회계 감사 의무제가 시행되어 감사 전환에 따른 재정비에만 6개월 소요된다고 하니 초기 도입 시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시스템 도입을 망설이는 기업도 적지 않을 것이다. 프로그램을 갖추더라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역시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
외부감사의견의
'빈익빈 부익부' 우려

소규모 기업의 경우 모든 면에서 사정이 훨씬 어렵다. 2020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인원과 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회계담당 인력 1인당 재무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아 기업의 입장에서는 효용 대비 비용이 크다는 인식 때문에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의무화가 시행되면 소규모 기업에서 내부회계관리의 취약점이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업 규모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우려도 생겨나 일각에서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내부회계 감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일몰제(日沒制)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에서 횡령과 같은 부정사건이 터질 때마다 시스템적 접근법으로써 제도를 더욱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색무취(無色無臭)의 해법이 될 수 있다.


❖ 충분한 자원과 시대적 요구에 대한 경영자 인식 필요

그렇다면 어떤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까? 윤두서의 <자화상>으로 돌아와서 그가 극사실적 자화상을 그릴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자. 윤두서는 조선 중후기 대표적 명문가 해남 윤씨 가문의 종손으로 태어나

막대한 경제적 부를 소유하였다. 문신이자 시인이었던 고산 윤선도의 증손자이고, 조선 후기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의 외증조로 그의 학문적 배경도 탄탄했을 것이다. 그는 공직을 떠난 후 당대 시대상을 반영하는 실학사상의 영향을 받아 조선 전기 그림에 자주 등장했던 신선이나 현실에 없는 존재를 그리지 않았다. 또한 어떤 대상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명확히 파악할 때까지 계속 관찰했다고 한다. 한편 조선시대의 초상화는 유교 문화에 의해서원이나 사당 등에 모시기 위해 그려졌다. 초상화는 실제 인물을 대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터럭 한 올이라도 다르게 그리면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一毫不似 便是他人(일호불사 편시타인)’과 “사람 내면의 기운까지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傳神寫照(전신사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그려졌다. 이렇듯 윤두서의 사실주의적 <자화상>은 그의 실학사상에 반영된 조선 중후반의 시대적 요구와 사회문화의 틀 위에서 만들어진 작품이다. 물론 극사실적 표현은 그가 사용할 수 있었던 다양한 안료와 배채법 등 독특한 표현기법이 기술적으로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회가 바라는 경영자의 모습은 사회문화적 요구와 경영자 자신의 철학이 맞닿아 형성되고 조직 내 시스템을 통해 완성된다는 통찰을 얻는다.

조선시대 초상화의 원칙과 시대적 요구가 만들어낸 윤두서의 <자화상>

❖ 금융당국의 지원책 마련과 경영자의 윤리적 리더십 필요

그런데 최근 일련의 횡령 사건들을 두고 감독당국과 업계가 대응하는 방식에는 이러한 통찰이 부족해 보인다.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은 기업 내 통제시스템의 취약성 문제를 주로 언급하는 반면, 기업은 한 개인의 일탈행위로 간주하며 제도를 보완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다소 냉대하다. 이러한 불완전한 시각으로는 현 상황이 앞으로도 반복될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정착하기 위해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문제점과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원이 부족하여 시스템 도입이 더딘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영자는 투명한 회계정보 공시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윤리적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경영자가 우선 윤리적 리더십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조직구성원들의 윤리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호불사 편시타인’과 ‘전신사조’의 정신은 윤두서 개인의 철학만은 아닌 시대적 요구였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윤리의식이 이러한 노력과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제도와 시스템에 앞서 윤리적 조직문화의 정착이 필요

미래 먹거리로 고성장중인 대체육 산업

안혜영 연구위원 (mith5@hanafn.com)

최근 채식 인구 증가, 환경과 건강을 중시하는 가치소비 확산으로 대체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체육 시장은 고성장하여 2040년 전 세계 육류소비 중 대체육 비중이 6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대체육 산업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도 타 친환경산업 대비 우위에 있어 최근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처럼 대체육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높지만 규제, 기술장벽, 사회적 합의 등 해결 과제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 기술의 발전과 소비자의 가치소비 정착으로 대체육 산업은 고성장 중

- 대체육은 전통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단백질 등의 성분을 지닌 원료를 바탕으로 고기와 유사한 맛, 향, 식감 및 모양 등을 구현한 식품으로 정의됨
- 과거 ‘콩고기’로 대표되던 대체육은 고기와 상이한 맛과 식감으로 소비자의 공감을 얻지 못했지만 최근 기술 발달로 실제 고기와 유사한 형태의 대체육이 등장하면서 가치와 윤리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증가
 - 코로나19를 경험하며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했고, 감염병으로 인한 공급 불안정 우려가 확대되면서 대체육에 대한 관심 고조
- 세계 대체육 시장규모는 2021년 54억 달러에서 2025년 약 71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며, 블룸버그는 향후 2030년까지 700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 예상
 - 대체육 시장의 고성장으로 전체 육류 소비 중 대체육의 비중도 2025년 10%에서 2030년 28%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대체육 시장 성장 요인



I. 인구 증가와 육류 소비량 확대

- 인구증가 대비 육류생산량이 충족되지 못해 대응책 마련이 요구



II. 환경오염, 자원고갈 등 문제의식 제기

- 세계 곡물 생산량의 1/3이 가축 사료로 이용, 전세계 온실가스의 15%가 가축에서 배출



III. 반려인 증가와 동물복지 관심 증대

- 반려인 증가로 가축 도살 과정이 수반되는 동물성 단백질 소비를 기피하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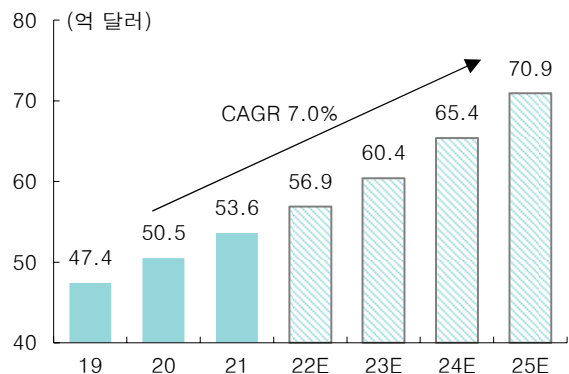


IV. 푸드테크 기술 발달

- 푸드테크 발달로 과거 대비 맛, 식감 등을 실제 고기에 근접하게 재현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세계 대체육 시장 전망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생명공학정책 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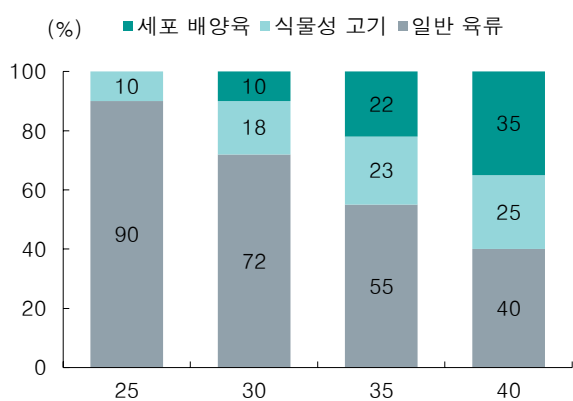
■ 대체육은 식물성 고기, 세포배양육, 식용곤충 등으로 구분되며, 현재 식물성 고기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 중이나 2030년을 기점으로 세포 배양육이 시장을 견인할 전망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대체육의 종류는 제조 방식과 원료 등에 따라 크게 식물성 고기, 세포배양육, 식용곤충, 미생물 발효육 등으로 분류
 - 식물성 고기: 식물, 해조류, 미생물 추출 단백질 성분을 이용하여 만든 고기로 현재 가장 보편화 되어 있음
 - 배양육: 동물 세포를 추출 및 증식하여 만든 고기로 실제 고기와 식감 유사
 - 식용곤충: 식용 가능 곤충으로 만든 대체 단백질로 국내에서는 주로 사료로 이용
-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와 육식과 관련하여 환경 및 윤리 문제를 제기하는 채식 인구가 증가하면서 대두 단백질 기반 식물성 고기 시장이 고성장 중
 - 한국 채식 비건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비건 인구는 지난 10년간 10배 이상 증가하여 '22년 약 1.8억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 실제 육류와 가장 유사한 세포 배양육은 기술 한계, 높은 비용, 윤리적 문제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근 참여 기업 확대로 기술 및 가격 장벽이 낮아지면서 2030년을 기점으로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됨
 - 세포 배양육으로 만든 햄버거 패티 가격은 '10년 개당 33만 달러에 현재 10달러 전후로 낮춰졌으나 덩어리육(홀 커트 미트)의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

■ 대체육 전환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은 타 친환경산업 대비 높은 우위를 지님

- 축산업은 산림파괴를 유발하고 다량의 메탄가스 배출이 발생하고 있어 온실 가스 (GHG)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15%를 차지하며 이는 운송 부문과 유사한 수준
 - 육류 소비는 1960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성장세 감안 시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와 관련한 탄소배출 증가세는 지속

■ 2025년 이후 전통 육류와 대체육 비중



자료 : AT Kearney

■ 기존 육류와 대체육 간 장단점 비교

구분	기존 육류	식물성 고기	배양육	식용곤충	
가격	대량생산 가능성	높으나 한계	높음	기술 한계	높음
	생산비	상승중	낮음	매우 높음	하락 중
환경	자원 사용량	높음	매우 적음	매우 적음	적음
	온실가스	높음	감소	잠재적 감소	감소
윤리	동물복지	상존	없음	없음	없음
	건강효과	변화 없음	균형	균형	균형
건강	안정성	변화 없음	알려지 우려	미검증	알려지 우려
	선호	수용도	높음	보통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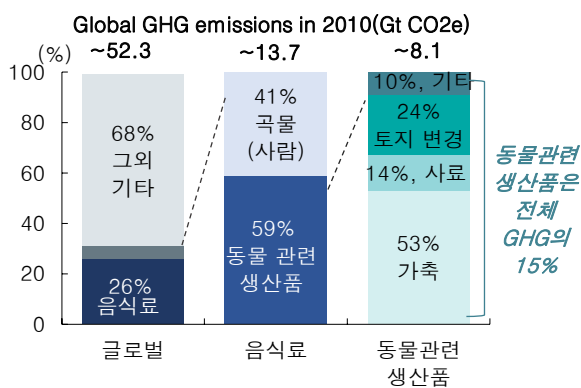
자료 : 한국바이오협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대체육이 기존 육류를 대체해 나간다면 산림의 훼손을 막고 가축의 메탄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서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지난 7월 BCG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까지 대체 단백질(대체육 포함)의 비중이 전체 단백질 소비의 11%까지 확대된다면 0.85Gt CO₂e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
 - 이는 해운산업의 95%, 건축산업의 25%를 탈탄소화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
- 또한 투자 비용 대비 온실가스 감축효과 또한 대체육 부문이 전기차, 친환경 시멘트 등 다른 친환경 산업대비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
 - 1조 달러의 친환경 투자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대체육이 4.4Gt CO₂e으로 시멘트의 3배, 빌딩의 7배, 자동차의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기술 투자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체육 관련 투자 확대 추세는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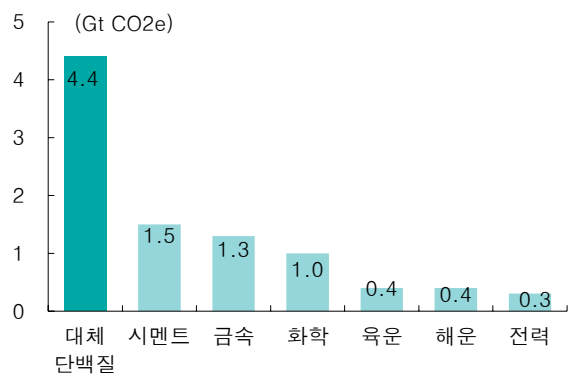
- 최근 산업 전 영역에서 기술 투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대체육 부문의 경우 지속 가능성과 공급망 충격에 영향이 적은 산업 특성상 안정적인 투자 지속 중
- Good Food Institute에 따르면 대체육을 포함한 대체 단백질 부문에 투자된 자본은 2019년 10억 달러에서 2021년 50억 달러로 2년 동안 연간 124% 증가
 - 평균 투자 규모도 '19년 건당 500만 달러에서 '21년 약 1,700만 달러로 증가
- 현재 영역별 투자 규모는 식물성 단백질 분야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발효 및 동물 세포 기반 단백질 분야에 대한 투자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
 - 대체 단백질 유형별 투자 증감률 (CAGR, % '19~'21) :동물 세포 기반 단백질 425%, 발효 기반 단백질 137%, 식물 기반 단백질 72%
- 한편 지역별로는 수요 비중이 큰 북미 지역의 투자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최근 아시아 태평양, 중동 등 다양한 지역으로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

■ 동물관련 생산품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 BCG,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1조 달러의 친환경 투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자료 : BCG,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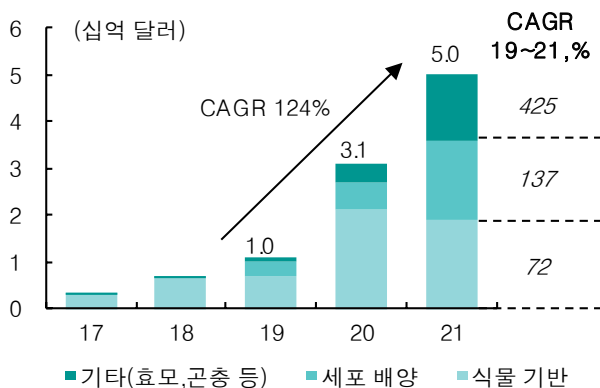
■ 현재 국내 대체육 시장은 글로벌 대비 협소하나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 대기업 참여로 브랜드 확대, 판매 중대로 이어지고 있어 고성장 기대

- 2021년 국내 대체육 시장은 글로벌 대비 0.4%(2,260만 달러)에 불과하나 MZ세대 주도의 가치소비 확산, ESG 달성을 위한 기업들의 참여 확대로 고성장 기대
- 최근 대체육 기술과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국내 대체육 시장을 구성해온 기술기반의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급증
 - 배양육은 현재 국내 판매가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스타트업 씨위드, 스페이스에프, 다나그린, 티센바이오팜 등이 50억원 이상 시리즈 A 투자를 유치
- 한편 CJ 제일제당, 농심, 대상 등 대형 식품기업과 다양한 영역 대기업들도 대체육 시장 선점을 위해 스타트업 투자 및 자체 개발을 통해 대체육 시장에 본격 참여
 - 농심, 풀무원, 신세계 등 대기업은 대체육 관련 투자 및 개발 뿐만 아니라 대체육 전문매장 및 레스토랑을 통해 유통과 판매도 확장
 - 이에 따라 대체육 제품 상품화 비중은 지난 '18년 37%에서 '21년 70%으로 확대

■ 대체육 시장의 고성장 방향성은 명확하나 규제 및 기술 장벽, 사회적 합의 등의 해결 과제가 상존하므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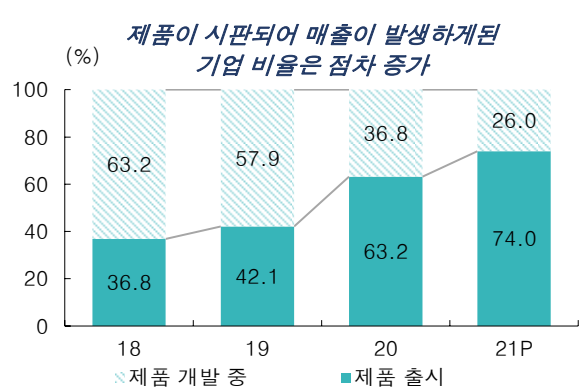
- 가치소비 확산, 식량 안보,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대체육 시장의 성장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므로 해당 시장에서 발생하는 기회에 주목할 필요
- 다만 대체육 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배양육 부문의 안정성 검증과 허가 기준 확립, 심리적 거리감 해소, 축산업계와의 상생 등 선결 과제 검토가 필요
- 이에 대체육 시장 참여 및 투자 결정 시, 국·내외 판매 허가 계획, 규제 변화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후 신중하고 전략적인 투자 방안을 모색해야 함

■ VC/VCV의 대체 단백질 투자 동향



자료 : BCG,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국내 기업 대체육 시장 참여 현황



자료 : 생명공학정책 연구센터

글로벌 CVC, 일본계 금융회사의 부상

송재만 연구위원(jmsong@hanafn.com)

그동안 글로벌 CVC 시장은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최근 인플레이션 및 금리인상 등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계 기업들은 대형금융그룹을 중심으로 기업 혁신, 신사업 진출 및 기술 확보를 위한 CVC 투자 확대로 글로벌 CVC 내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CVC 시장도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과 대기업 중심의 투자 니즈 증대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향후 신사업 진출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CVC 신설 및 활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등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로 글로벌 CVC^[1] 시장의 성장세 둔화^[2]

- 2022년 2/4분기 글로벌 CVC 투자 규모는 전분기 대비 32% 감소한 266억달러이며, 2021년 3/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감소세
 - 글로벌 CVC 투자 규모(억달러) : 472('21.4Q) → 392('22.1Q) → 266('22.2Q)
- 글로벌 CVC 투자 건수도 1,148건으로 2020년 1/4분기 이후 처음 감소세로 전환되며,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의 위축과 함께 CVC 시장 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모습
 - 글로벌 CVC 투자 건수 규모(건) : 1,357('21.4Q) → 1,405('22.1Q) → 1,148('22.2Q)
 - 글로벌 VC 투자 규모(억달러) : 1,778('21.4Q) → 1,416('22.1Q) → 1,085('22.2Q)

■ 일본계 기업은 대형금융그룹을 중심으로 글로벌 CVC 내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

- 글로벌 CVC 시장 내 주요 플레이어는 미국계 회사인 Coinbase Ventures, Google Ventures와 함께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계 회사가 포함
 - 글로벌 CVC 시장은 미국, 아시아(일본, 한국 등) 지역의 금융회사 및 빅테크가 주도
- 최근 글로벌 Top 10 CVC 중 일본계 회사가 다수 포함되며 글로벌 CVC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
 - 글로벌 Top 10 CVC 내 일본계 회사는 '22.1Q 2개에서 '22.2Q 6개로 증가하였으며, 대형금융그룹(MUFG, Mizuho, SMBC) 계열 CVC가 주요 투자자로 부상
 - 국내 회사는 KB Investment(4위)와 Kakao Ventures(10위)가 Top 10에 포함


[1]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는 대기업이 출자한 VC를 뜻하며, 재무적 수익 외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기술 및 인재 확보, 신사업 진출 등 전략적 목적도 함께 추구

[2] "State of CVC, Q2'22 Report", CBInsight, 2022.0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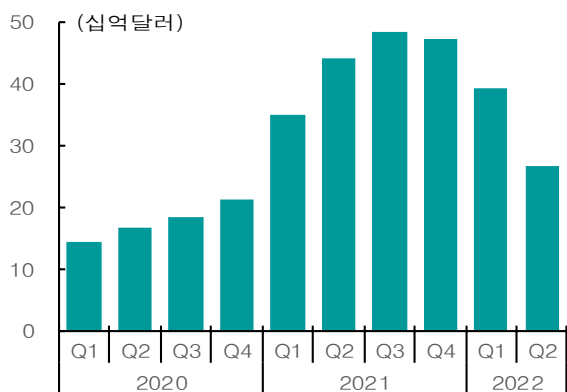
■ 글로벌 CVC 내 일본계 기업의 부상은 재무적 수익 목적 외에도 기업의 개방형 혁신, 신규 비즈니스 육성, 기술 확보/주도 등을 위한 전략적 투자 증가에 기인

- 그동안 일본 벤처투자는 일부 투자자만 참여하는 소규모 시장이었으나 최근 경기침체 우려에도 2022년 상반기 투자액이 4천억엔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
- 특히 MUFG는 아태지역의 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해 다수의 펀드를 설립하고 그룹의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신기술 확보 등에 CVC를 적극 활용 중
 - MUFG는 'MUFG Ganesha Fund(인도)' 외에도 이스라엘 Liquidity Capital과 'Mars Growth Capital'을 설립하고 3억달러 규모 자본을 추가 투입해 2차 펀드를 조성³⁾
 - 'Mars Growth Capital' 1차 펀드는 '20.12월부터 운영해 초기/성장 단계의 스타트업을 지원, 2차 펀드는 유니콘 기업을 포함한 후기 스타트업 자금 지원에 집중

■ 국내 CVC 시장은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과 기업들의 투자 니즈 증대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향후 기업 신사업 진출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CVC 활용을 모색할 필요

- 국내 CVC 시장은 정부의 규제 완화 및 기업의 투자 중요성 증대에 따른 CVC 설립 확대 움직임으로 관심이 고조
 - '21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일반 대기업 지주사의 벤처캐피탈(CVC)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기업 중심의 CVC 설립이 증가
 - 국내 금융회사는 비은행 계열의 포트폴리오 강화, 수익 다변화를 목적으로 VC 관련 계열사의 신설 및 인수를 추진하며, 전략적 투자 펀드 조성을 확대
-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CVC를 통해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고 기술 혁신, 신성장 동력 발굴에 활용함에 따라 민간차원의 벤처 생태계 기반 강화가 예상
 - 국내 벤처 생태계는 그동안 양·질적으로 성장한 만큼 정부 외에도 민간 중심의 CVC가 주도하여 벤처투자 시장 침체를 방어하고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 

■ 글로벌 CVC 투자액 추이



자료 : CBInsight

■ 글로벌 Top CVC 순위 추이 (투자기업 수 기준)

순위	'22.1Q	순위	'22.2Q
1	Coinbase Ventures	1	Coinbase Ventures
2	Google Ventures	1	Google Ventures
3	Salesforce Ventures	3	Mitsubishi UFJ Capital
4	Mitsubishi UFJ Capital	4	KB Investment
5	Alameda Research Ventures	5	Salesforce Ventures
5	KB Investment	6	Mizuho Capital
5	Kakao Ventures	6	SMBC Venture Capital
8	SMBC Venture Capital	8	SBI Investment
9	Hana Ventures	9	Sony Innovation Fund
9	Prosus Ventures	10	Mitsui Sumitomo Insurance Venture Capital

자료 : CBInsight

[3] "Japan's largest bank MUFG to launch new \$300 mln debt venture fund", Reuters, 2021.12.24

은행의 새로운 경쟁력, 사이버 보안

정윤영 수석연구원(yunyeong.j@hanafn.com)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로 사이버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은행의 사이버 보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사이버 리스크의 대응 및 관리 전략이 중요해지면서 글로벌 은행들은 지속적인 기술 투자로 보안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이 빠르게 진화하는 가운데 은행의 사이버 리스크 대응 전략은 신뢰성과 연결되어 중요하다. 따라서 국내 은행들도 보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 기술발전 가속화로 금융회사의 편의성은 향상되었지만 사이버 리스크는 중대¹⁾

- 코로나 19 이후 원격근무 확산, 핀테크 기업과의 디지털 경쟁 심화, 오픈뱅킹 도입 등의 영업환경 변화로 은행은 보안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
 - 급속한 디지털 전환 시도로 발생하는 디지털 발전과 사이버 보안사이의 기술격차로 인해 은행은 민감한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노출
- 사이버 리스크는 온라인 사기부터 데이터 유출, 멀웨어 및 랜섬웨어, DDoS 등의 사이버 공격까지 다양하며 관련 범죄도 점증할 것으로 예상
 - Cybersecurity Ventures에 따르면 전 세계 사이버 범죄 규모는 2025년까지 연간 10조 5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 금융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사이버 리스크의 대응 및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은행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이버 보안 인프라 구축 노력


- 은행의 사이버 보안 관리 영역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역별 관리가 중요
- 은행들은 보안 프로그램 구매, 자체 보안 기술 개발, 관련 인력 충원 등의 방식으로 보안 시스템 구축에 임하고 있으며 관련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 중
 - 은행부문 사이버보안 관련 특허 증가(건): 4,892('14) → 16,228('21)
 - 은행부문 사이버보안 관련 일자리 수 증가(개): 2,578('20.1월) → 17,146('22.3월)
 - JP Morgan, BOA, Wells Fargo 등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9개 은행은 별도의 CISO(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s)를 고용

[1] "Cybersecurity in Banking", GlobalData, 2022.0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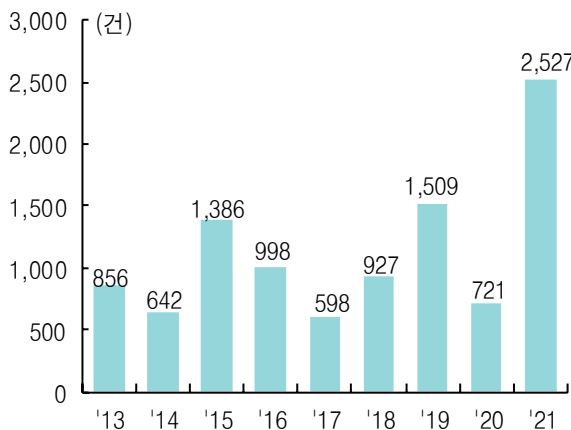
■ 주요 글로벌 은행들은 자체 보안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보안 기술 투자에도 적극적

- 글로벌 은행들은 과거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보안 인프라를 구축할 뿐 아니라 보안 관련 회사 및 기술에도 적극적으로 투자
 - (HSBC) '12년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돈세탁 혐의에 연루된 이후 고객과 회사간의 비정상 금융거래 탐지 솔루션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였으며, '17년 HSBC Ventures를 통하여 사이버 보안 회사 Menlo Security에도 4천만 달러 투자
 - (JP Morgan) '14년 7600만 가구와 700만 중소기업의 계정 해킹 공격에 노출된 이후 사이버 보안 인식 및 사기 방지팁을 통해 다양한 교육 및 전문가 지원을 제공하며, '22년에는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기술영역에 120억 달러 투자 발표
 - (Goldman Sachs) 실제 보안 설계 솔루션 구현을 담당하는 전문가 및 엔지니어를 포함한 모니터링 팀을 구성하여 보안 위협을 분석하며, '19년 Immersive Labs의 사이버 보안 기술 플랫폼에 800만 달러 투자도 주선

■ 사이버 공격이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은행의 사이버 리스크 대응은 신뢰성과 연결될 수 있어 중요하며, 국내 은행들도 사이버 보안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

- 오픈 API, 오픈뱅킹 등 금융산업 개방으로 국내 은행도 보안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에 보안 관련 국·내외 금융규제도 강화되는 추세
 - 금융보안원에 따르면 국내 소매금융 취급 은행 17곳이 '17~'21년 받은 사이버 공격은 109만1천606건으로 매일 598건의 사이버 공격이 발생
 - 국내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기반으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급결제 기관에 대해서는 망분리 제도를 시행
- 디지털 금융의 기반에는 보안성이 전제되는 만큼 국내 은행도 단기적 대응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의 사이버 보안 전략 수립이 필요 

■ 전세계 금융산업 사이버 사고 건수 추이



자료 : Statista

■ 해외 은행들의 사이버 리스크 대응 현황

은행명	사례
아부다비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sa의 생체인식 솔루션을 소비자 인증 서비스에 활용함으로써, 간소화된 인증프로세스 제공
HS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기반 생체인식을 활용한 인증 방식 채택 - 폰뱅킹 사기시 사람의 목소리는 모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착안한 인증방식(VoicelD) - 은행은 PIN번호 없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기성 뱅킹 활동도 방지 가능
Danske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원 이니셔티브를 도입하여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사이버 보안 인프라를 서비스로 제공 - 중소기업 전용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출시하여 사이버 금융 범죄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도록 지원
도이치뱅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무휴 글로벌 사이버 인텔리전스 및 대응센터를 운영(싱가포르, 독일, 미국)

자료 : GlobalData

금리: 연준과 한은, 경기보다 물가안정 우선

이 화 정 수석연구원(hj_lee89@hanafn.com)

글로벌 금리는 경기침체 우려에도 통화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급등했다. 국내금리는 대내외 긴축기조와 외국인 대규모 선물매도 등이 맞물리며 폭등했다.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의장의 명확한 금리인상 의지 시사로 최종 美 금리수준이 4% 이상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는 연준 긴축기조 및 고물가 지속 등을 감안했을 때 3% 이상까지 금리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한 상황이나, 대외금리 상승 영향으로 변동성 장세가 예상된다.

■ 글로벌 금리는 침체 우려에도 주요국 긴축기조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급등

-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은 美 경제의 경착륙을 용인하더라도 인플레이가 2%에 안착할 때까지 금리를 제약적 수준까지 인상하고 한동안 유지할 방침을 시사
- 유로존 고물가(8월 CPI YoY 9.1%, '97년 이래 최고)에 대응한 ECB의 긴축 가속화(9월 예상 금리인상폭 75bp) 우려로 유럽 국가들의 국채금리가 급등
- 한편 중국은 산발적 봉쇄조치로 내수부진, 생산차질 등 경기하방 압력이 가중되자 기준금리 인하(LPR 1Y 3.7%→3.65%)를 단행하며 주요국과 정책 디커플링 심화
- 美 금리는 연준의 일관된 긴축 메시지로 시장의 이른 피벗(정책전환) 기대가 좌초되자 폭등했으며, 장중 2년물 금리는 15년래 최고치를 경신(9.1일 3.55%)
 - 美 2/10년물 금리(%): 8.19일 3.23/2.97 → 26일 3.40/3.04 → 9.1일 3.50/3.25


■ 국내금리는 대내외 긴축기조 강화 속 외국인 대규모 선물매도 등이 맞물리며 폭등

- 8월 금통위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해 4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2.25%→2.5%), 수정 경제전망에서는 올해 물가 전망치를 큰 폭 상향조정(4.5%→5.2%)
 - 한은 총재는 당분간 25bp의 점진적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중립금리 상단까지 금리를 인상할 방침이나, 고물가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추가인상 가능성도 시사
- 이후 한은 총재가 연준보다 먼저 금리인상을 종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발언하며 금리가 급등했으나, 8월 CPI 상승세 둔화(YoY 5.7%, 전월 6.3%)로 소폭 반락
 - 8월 물가둔화는 유가 하락,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석유류 가격 하락(MoM -10%)에 주로 기인, 그러나 개인서비스(0.6%) 상승세가 견조해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
 - 국고 3/10년(%): 8.19일 3.19/3.30 → 9.1일 3.78/3.81 → 2일 오전 3.74/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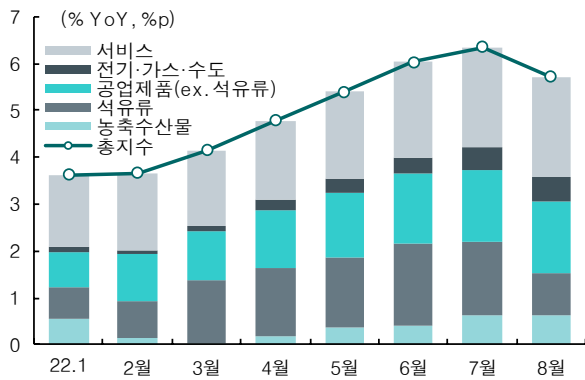
■ 물가가 목표 수준까지 도달하는데 상당기간 소요 예상되며 한미 긴축기조 장기화 전망

- 경기침체 우려로 인한 연준의 조기 긴축종료 가능성이 부각되기도 했으나, 잭슨홀에서 파월의 명확한 금리인상 의지로 최종금리 기대수준 및 예상 종료시기 변동
 - 美 연방금리 선물시장은 올 연말을 기준금리 고점 시기(3.5~3.75%)로 봤으나, 잭슨홀 연설 이후 고점 시기가 내년 1월로 미뤄지고, 고점 수준은 3.75~4.0%으로 상향
- 특히 파월 의장이 근원PCE 2% 안착에 주력할 것을 시사한 만큼 내년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어 최종 금리수준은 4.0% 이상으로 전망
 - 원자재 가격과 기대인플레이션은 안정되었으나 가격변동 빈도가 낮은 경직적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고, 타이트한 고용시장 고려 시 연준의 추가인상 명분은 충분
 - 9월 FOMC에서 75bp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으나, 물가상승률이 둔화세를 이어갈 경우 인상폭이 조절(50bp)될 가능성도 존재. 연말 기준금리는 최소 3.75%로 예상
- 국내의 경우, 내년 초까지 성장세가 크게 약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이 5%대를 웃돌고, 연준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될 시 3.0% 이상까지 금리인상 예상
 - 한은은 물가가 내년 중반부터 3%대로 안정되고 기대인플레 상승 위험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고물가가 장기화될 경우 추가 인상 가능성도 존재

■ 국내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선반영에도 불구하고, 대외금리 상승 영향으로 변동성 장세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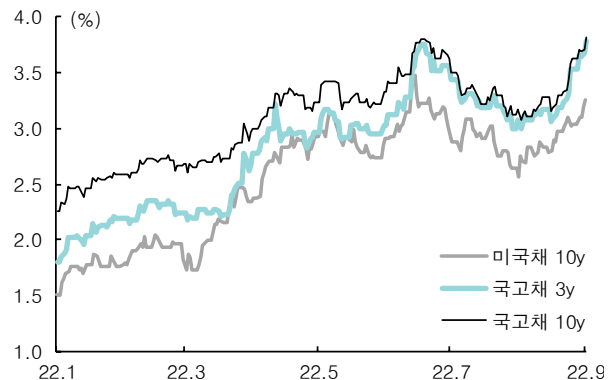
- 美 금리는 내년까지 연준의 정책전환이 난망해진 만큼 단기물 중심의 상승이 예상되며, 8월 고용지표(비농업일자리, 실업률 등) 호조 시 상승압력 확대 예상
 - 이에 더해 9월 연준 QT규모 증가(\$950억/월, 6~8월 대비 2배)로 변동성 확대 소지
- 국내는 기준금리 종결점 수준 이상으로 금리인상분을 반영한 상황이나, 주요국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 내 안정세 진입은 어려울 전망
 -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3.55%~3.85%, 3.60%~3.95% 범위로 전망 

■ 국내 소비자물가 및 품목별 기여도



자료 : 통계청

■ 대내외 국채금리 추이



자료 : Bloomberg

외환: 견제구 없는 달러화 독주

오현희 연구위원(hyunheeoh@hanafn.com)

원/달러 환율은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지속되는 가운데 잭슨홀 미팅에서 강력한 긴축의지가 확인되면서 1,350원을 상향 돌파하였다. 환율 급등에 따른 당국의 구두개입과 ECB의 긴축 강화 움직임에도 유럽과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원화약세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의 달러강세 요인들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외 경기 및 물가지표, 주요국 통화정책 향방에 따라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어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 [원/달러 환율] 연준의 강력한 긴축의지가 확인되며 연고점을 또다시 경신

- 8월 26일 열린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긴축적 정책기조 유지 시사 발언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
 - 당국의 구두개입에도 불구하고 9월 1일 1,354.9원으로 마감하며 연고점 재경신
- 중국의 경기부양책 발표에도 인민은행의 추가금리 인하, 청두시 전면봉쇄(9.1일) 등으로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위안화와 동조성이 높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
- 국내 경기지표 부진으로 경기하방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8월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된 점도 원화약세에 일조
 - 7월 중 국내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모두 전월대비 감소하였으며, 8월 중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의 적자폭 기록(8월 94.7억 달러 적자, 1~8월 누적 247.2억 달러)


■ [국제 환율] 연준의 긴축기조와 유럽 및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강달러 지속

- 달러화는 연준의 긴축의지 확인, 유럽 에너지 위기, 중국의 경제둔화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내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증가로 강세
 - 달러화 지수는 주요 통화가치가 연저점을 경신하며 9월 2일 109.7까지 상승
- 달러/유로 환율은 ECB의 에너지시장 개입 소식과 기준금리 인상 기대 등으로 반등하기도 하였으나, 에너지 위기 심화 우려 및 지표 악화 등으로 약세 지속
 - 9월 2일 달러/유로 환율은 0.9947로 1:1 패리티 재차 붕괴
- 엔/달러 환율은 일본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로 엔화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잭슨홀 미팅 이후 미국의 강력한 긴축의지가 재확인되며 140엔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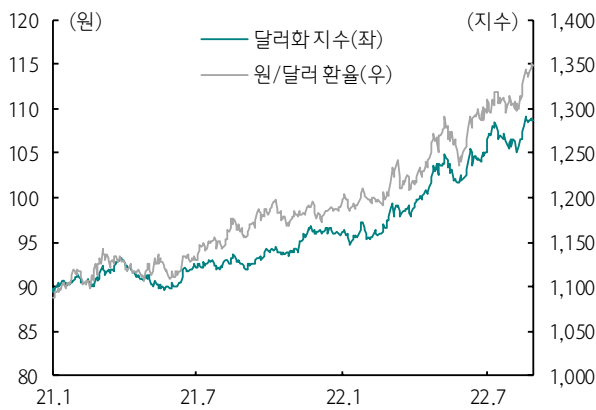
■ 9월 ECB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유로화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

- ECB는 9월 8일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최소 50bp 인상할 전망
 - 유로지역의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1%로 10개월째 사상 최고치 경신
- ECB의 기준금리 인상은 유로화의 강세 요인이나, 긴축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강세 전환이 쉽지 않은 환경
 - 금리인상이 부채위기를 겪는 취약국가들의 금융 분절화 우려를 높인다는 점에서 유로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
- 러시아-우크라이나 관련 이슈가 해소되기 전까지 유럽지역의 에너지 공급 관련 우려가 이어지면서 유로화의 불확실성도 지속될 전망

■ 강달러에 기반한 원/달러 환율 상승압력과 변동성 위험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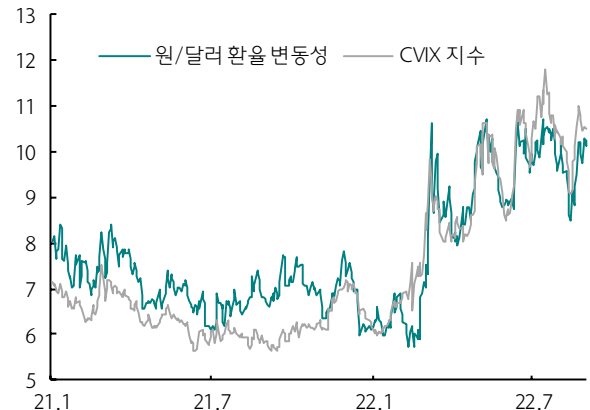
- 최근 달러강세를 유발하고 있는 연준의 통화 긴축 기조, 유럽과 중국의 불안요인 등은 단기적인 해소 가능성이 낮아 강달러 환경이 지속될 소지
- 강달러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위안화 약세, 국내 수출경기 둔화 우려, ECB 정책회의 결정 등에 따른 변동성 위험은 지속
 - 최근 원/달러 및 주요 통화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며, 올해 원/달러 환율의 연저점과 연고점간 차이는 167.6원으로 금융위기 이후(2020년 제외) 가장 큰 폭
- 향후 원/달러 환율은 국내외 경제 지표와 주요국 중앙은행의 행보 등에 따라 1,340~1,370원 레인지에서 움직일 전망 

■ 원/달러 환율과 달러화 지수



자료 : Bloomberg

■ 원/달러 환율과 국제 환율 변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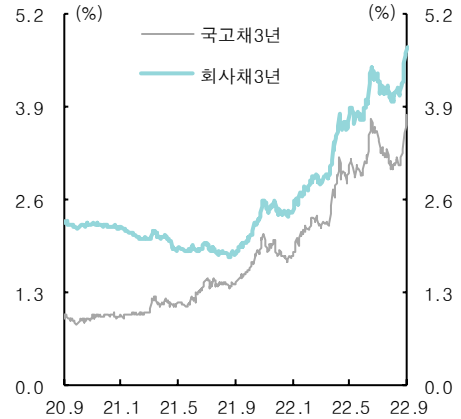


주 : 1. 변동성은 통화옵션 1개월물 내재변동성으로 측정
 2. CVIX는 주요 7개 통화옵션의 내재변동성을 지수화
 자료 : Bloomberg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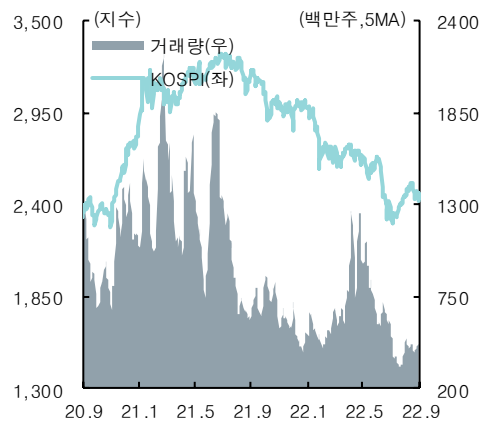
금리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0년말	0.61	0.66	0.90	2.21	0.98	1.34
'21년말	1.44	1.29	1.66	2.42	1.80	2.01
7월말	2.34	2.73	3.43	3.97	3.01	3.07
8월 26일	2.43	2.92	3.59	4.50	3.53	3.62
8월 29일	2.42	2.92	3.65	4.62	3.65	3.76
8월 30일	2.43	2.92	3.64	4.62	3.64	3.74
8월 31일	2.55	2.92	3.67	4.66	3.69	3.78
9월 01일	2.50	2.92	3.71	4.75	3.78	3.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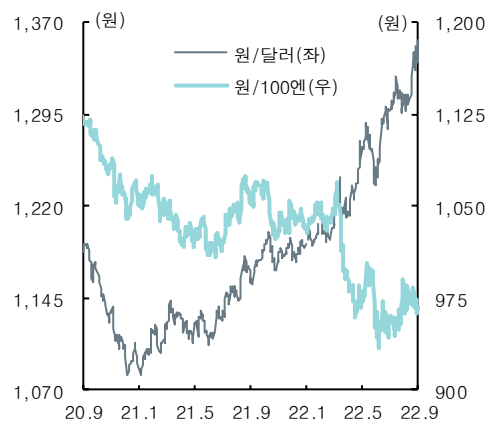
주가

	KOSPI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0년말	2,873.5	179,289	1,074	2,494
'21년말	2,977.7	87,275	461	-2,184
7월말	2,451.5	102,563	499	3,416
8월 26일	2,481.0	86,287	520	2,390
8월 29일	2,426.9	78,915	449	-480
8월 30일	2,450.9	68,266	337	-397
8월 31일	2,472.1	95,626	436	7,453
9월 01일	2,415.6	84,523	580	-2,911



환율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0년말	1,086.3	1,052.0	166.3	1,327.0
'21년말	1,188.8	1,032.8	187.1	1,352.4
7월말	1,299.1	974.8	192.6	1,328.3
8월 26일	1,331.3	967.7	193.7	1,326.4
8월 29일	1,350.4	973.3	195.5	1,349.9
8월 30일	1,346.7	970.3	194.9	1,348.6
8월 31일	1,337.6	962.5	194.1	1,344.5
9월 01일	1,354.9	966.3	196.1	1,3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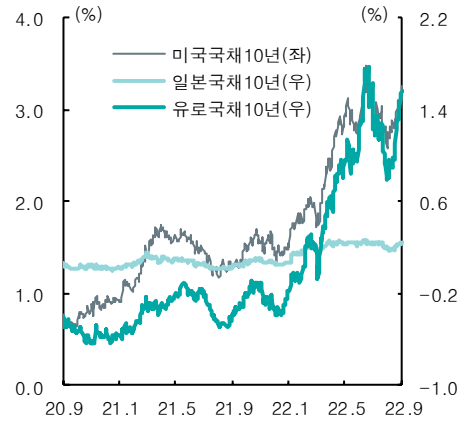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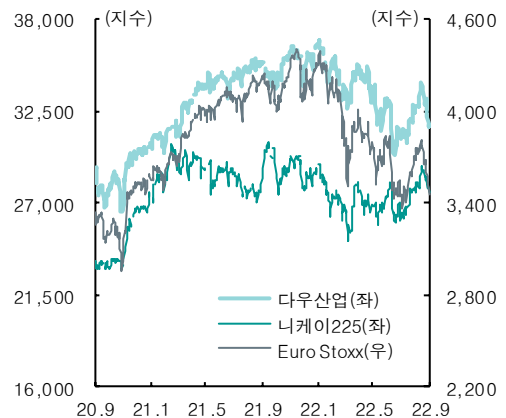
금리

	미국				일본	유로
	FFR	리보(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0년말	0.09	0.24	0.12	0.91	0.02	-0.57
'21년말	0.07	0.21	0.73	1.51	0.07	-0.18
7월말	2.32	2.79	2.88	2.65	0.19	0.82
8월 26일	2.33	3.07	3.40	3.04	0.22	1.39
8월 29일	2.33	-	3.42	3.10	0.25	1.50
8월 30일	2.33	3.08	3.44	3.10	0.23	1.51
8월 31일	2.33	3.10	3.49	3.19	0.23	1.54
9월 01일	2.33	3.14	3.50	3.25	0.24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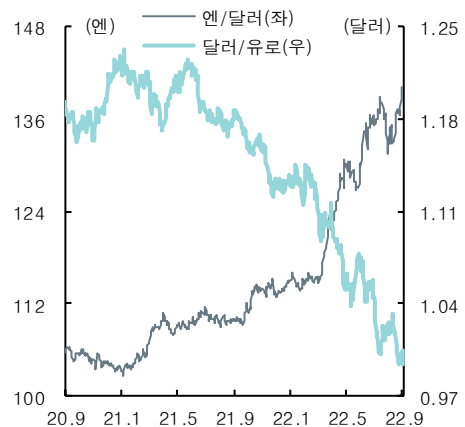
주가

	다우산업	니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0년말	30,606.5	27,444.2	3,473.1	3,552.6
'21년말	36,338.3	28,791.7	3,639.8	4,298.4
7월말	32,845.1	27,801.6	3,253.2	3,708.1
8월 26일	32,283.4	28,641.4	3,236.2	3,603.7
8월 29일	32,099.0	27,879.0	3,240.7	3,570.5
8월 30일	31,790.9	28,195.6	3,227.2	3,561.9
8월 31일	31,510.4	28,091.5	3,202.1	3,517.3
9월 01일	31,656.4	27,661.5	3,185.0	3,456.7



환율/상품

	환율		상품	
	엔/달러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0년말	103.25	1.222	51.1	1,895.1
'21년말	115.09	1.138	77.2	1,814.1
7월말	133.20	1.022	107.2	1,781.8
8월 26일	137.57	0.996	99.7	1,749.8
8월 29일	138.72	1.000	-	1,749.7
8월 30일	138.79	1.001	102.8	1,736.3
8월 31일	138.96	1.005	97.9	1,726.2
9월 01일	140.20	0.994	94.0	1,709.3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2권 18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2년 9월 3일 인쇄

2022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박성호

편집인 김영준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2권 18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Fax 2002-2610